

<인사 말씀>

10.27법난 피해자를 대표하여 조계종 총본산
성역화불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

군사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‘작계45’라는
작전으로 전국의 사찰에 군경을 투입하여
우리 종단의 스님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여
범법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.

보안사에서 스님들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
수행자가 아닌 짐승 취급을 받았고 언론을 통
해서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종단
과 수행자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게 만든 것이
바로 10.27 법난입니다.

저를 비롯한 피해자 스님들과 종단의 노력에
끈질긴 요구에 의해 비로소 특별법이 만들어지
고 법난 관련 각종 행사가 비로소 이루어지고
있어, 먼저 입적하신 스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
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입니다.

비록 개인배상을 받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
지만 피해자 스님들, 종단, 그리고 불교계의 노
력에 의해 단체배상 성격의 1027법난 기념관
건립이 총본산 성역화 불사로 승화되었습니다.

원만 회향하여 후학들에게도 10.27법난의 진실
을 간직하여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
이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.

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